

미리 보는 10년 후 우리 양돈산업

- “경영”부문의 향후 10년간 핵심 연구과제

모든 연계분야의 경영 진단·분석

1. 경영부문의 분야

경영이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광의로 보면, 농가 경제로서의 해석에 가깝고, 사경제적(私經濟的)인 수지(收支) 문제로 이를 이해 할 수 있는 경우로, 이때 농업경영이란 농가 경제와 거의 일치된 개념이다. 협의로 보면, 하나의 관리상의 기술적 단위로서 경영이라는 의미로 한정될 수 있다. 광의의 ‘경영’은 양돈농가의 생산단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영활동과 양돈농가의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종돈, 사료,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어질 것이고, 협의의 ‘경영’은 양돈농가의 생산단계 중에서도 기술적 부문을 제외한 (경영)관리의 의미에 국한되거나 더 좁게는 작업 조직으로서의 경영으로 그 범위가 더욱 좁아지게 된다.

관리(경영)의 의미로 국한하여 본다 하더라도 부기기장이나 경영계획, 경영활동, 경영진단, 경영분석 등으로 그 범위는 매우 좁은 것이다. 따라서, 경영의 의미를 협의로 해석할 경우 향후 10년간 핵심 연구과제를 논할 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과제 또는 연구의 영역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양돈경영에 있어서 말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세분되어 있다. 그 분야를 대략적으로 분류해 보면, 육종분야, 사료분야, 사양 및 시설분야, 질병분야, 위생분야, 경영관리분야, 기타 경영외부연계 분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양돈경영상에 있어서 현안 문제와 양돈산업의 발전 방향

구체역 이후 양돈산업을 차



허 덕 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팀

제에 선진형으로 재편하자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선진축산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선진축산이란, 이제까지 정책의 초점이 되어 왔던 가격 경쟁력 보다는 품질 경쟁력 그리고 환경보전에 정책의 비중을 더 둔다는 의미이다. 그러면서도 국제 경쟁력의 향상에 대한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대책에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비용 절감과 고품질 생산이라는 발전 방향과 양돈 경영의 준폐를 결정하는 친환경 양돈을 전제로 할 경우 각 방향에 있어서 경영부문의 현안 문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가. 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부문의 현안문제

양돈농가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비용 절감에 의한 가격 경쟁력의 확보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통한 품질 경쟁력의 확보가 있다. 주변 여건의 심각성

으로 볼 때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양돈농가가 생산비의 절대액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육 형태를 일관생산 체계로 전환(경영관리분야)하여야 할 것이며, 가축의 생산성 향상(육종분야, 사양·시설분야, 질병

관리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까지 등한시해 왔던 가축 개량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가축 개량에 관한 정부의 가축 개량에 대한 의지가 무엇 보다도 중요하지만, 경영차원에서의 가축 개량 의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위생적인 사양관리를 위해선 경영자 자신의 위생에 대한 관심과 시설,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분야 등 복합), 규모 확대(경영관리분야) 및 양돈농가의 조직화(외적 연계분야)에 의한 생산요소의 대량 구매, 낭비적 요소를 근절하는 방향(경영관리분야)으로 경영구조를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영부문에 국한하여 본다면, 생산조직 구조를 일관형으로 가져가야 하고, 생산자들을 조직화해야 하며, 경영

나.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경영부문의 현안문제

부가가치가 높은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높은 등급을 받는 방법과 좋은 품질이라는 이미지의 브

랜드를 갖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위생적(위생분야)이고, 잔류물질이 없는 사양관리(사양분야)가 기본이 된다. 위생 수준의 향상은 질병 발생율(질병분야)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경영차원에서 위생적인 사양관리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경영자 자신의 위생에 대한 관심이며, 위생적인 사양관리를 가능케 하는

축사 구조(사양·시설분야)와 각종 병균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환경조성(질병분야) 또한 중요하다.

고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는데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양돈농가 혼자만의 힘으로 단시간에 높은 기술을 습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가축의 방역 또한 혼자만의 힘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컨설팅(경영관리분야)이나 가축방역 조직의 구축 등과 같은 외부의 협조나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연구회를 조직(외부 연계분야)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 조직화를 통해 생산기술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생산자 조직의 형성은 경영자능력의 향상, 가축방역, 기술수준 향상 등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측면 뿐만 아니라 수급조절 측면에서도 강조된다.

다. 친환경 양돈을 위한 경영부문의 현안 문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양돈농가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양돈 분뇨의 적절한 처리(시설분야)로 귀결된다. 양돈

은 토지를 기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양돈 분뇨를 토양으로 환원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양돈농가는 자신이 생산한 퇴비를 경종농가에게 환원 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필요로 한다.

현재 양돈분뇨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비육돈 생산비의 10% 내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돈분뇨 처리를 위한 투자가 중복 투자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영측면에서 비효율적인 투자부분을 줄여야 한다(경영관리분야).

인근의 경종농가에 국한하여 자신이 생산한 가축분뇨 비료를 처리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타지역의 경종농가와 연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양질의 축분퇴비의 생산은 항구적인 수요처의 확보 측면에서 필수적이다(외적 연계분야).

3. 양돈경영부문 각 분야의 핵심 연구과제

각 분야별로 문제가 무엇

이고 어느 분야의 연구가 필요한지는 각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키워드(key word)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가. 육종분야의 핵심 연구과제

육종분야의 경우 개량체계 개편, 유전력 증대, D/B 구축, 인공수정(AI) 기술 향상, 검정사업, GMO 등이 키워드이다.

즉, 돼지 육종과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서 1) 가축개량체계의 개편과 유전정보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2) 번식기술과 인공수정기술 등을 이용한 가축의 유전력 향상 기술의 개발 또는 핵돈군 인공수정 활성화에 관한 연구, 3) 농장에서의 자율적 능력검정 방법에 관련된 연구, 4)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한 유전적 보유자원의 개발 및 인식기술 개발 등이 주요 연구과제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 시설 및 사양분야의 핵심 연구과제

시설 분야에서 분뇨처리,

친환경양돈, 기자재 표준화, 물과 에너지 등과 같은 키워드가 자주 등장한다.

즉, 이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은 1) 가축분뇨의 자원화 관련 연구이며, 여기에는 돈분의 재활용기술 개발, 퇴비 품질의 표준화·고급화 방법, 나아가서 앞으로 문제시 될 부분인 악

경적 영향, 축사의 구조 등과 연계되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양관련 분야에서는 육질 개선, 사양 신기술, 생산효율, 성장률, 사료요구율, 물돼지(PSE) 돈육 등의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즉, 1) 비용절감과 품질고

다. 질병 및 위생분야의 핵심 연구과제

질병분야에서는 각 질병 그 중에서도 전염병들의 명칭과 방역조직 또는 대책, 청정화, 선진국 방역시스템 등의 용어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경영차원에 해당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국가 차원 또는 산업 차원에서 다루어질 경우 주로 사용된다. 그렇지만, 경영부문과 연계하여 볼 때 일단은 돈군의 건강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즉, 1) 돼지의 주요 질병을 농가 수준에서 어떻게 방제하여 생산성을 높였는가 하는 사례 연구, 2) 국가나 지역 단위로 결성된 가축방역 조직과 농가간의 연계 및 컨설팅 기관/업체를 어떻게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돈군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위생분야에서는 단연 위해요소중점관리제(HACCP)라는 용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보이며, 관련하여 브랜드 돈육 생산이라는 용어가 따라붙는다.

HACCP제도가 농장단체에



▲육종분야는 번식기술과 인공수정기술 등을 이용한 가축의 유전력 향상 기술의 개발 또는 핵돈군 인공수정 활성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취 방지 대책 등에 관한 연구가 포함된다. 2) 유기축산물 생산과 관련된 연구로써 경종 농가와 축산농가의 연계 시스템 확립, 농지별 작물별 가축분뇨 살포 기준의 설정 등의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이러한 기준이 농가단계에서 화학비료의 투입, 토질의 상태, 지역적 퇴비수급 및 환

급화와 관련된 농가 이용 기술의 개발과 2) 그 적용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분야를 경영과 접합시킬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농장의 각종 여건과 결합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연구 패턴을 도출 할 수 있다.

도 적용(우수농가관리제도:GAP)될 날이 멀지 않아, 이와 관련된 연구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위생성의 향상은 품질 고급화의 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생성을 강조한 브랜드 돈육의 생산과 마케팅 방법에 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라. 경영관리, 기타 외부 연계분야 및 사료분야의 핵심 연구과제

경영관리분야에서는 기장·부기·회계, 양돈경영컨설팅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경영자 능력, 투자분석, 정보의 피드백(feed-back), 인테그레이션, 인력관리, 마케팅 등등 비교적 그 내용이 많고 구체적이다. 그렇지만, 기장·부기·회계 등은 컨설팅의 기초가 되고 컨설팅의 내용에는 투자분석, 인력관리, 마케팅 활동 등이 포함되며, 컨설팅 활동 자체가 경영차원에서 보면 정보의 피드백이라는 사실은 인식하면 양돈경영컨설팅, 경영자 능력 그리고 인테그레이션 등으로 범위를 압축할 수 있다.

결국, 이 분야에서는 1) 양돈경영컨설팅의 효과에 대한

산출과 그 결과의 이용·홍보 등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며, 2) 현재의 경영자 능력이 어느 정도이며, 향후 어떤 분야의 경영자 능력이 요구되며, 또한 경영자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경영자 능력의 측정과 경영자 능력 제고 메카니즘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농가가 생산단위의 한 경영자로서가 아닌 수직적으로 통합된 형태로서의 경영단위의 경영자가 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그 경영체 하부에서 부분적인 주체로서 행동할 수도 있으므로, 3) 현재의 경영형태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양돈농가들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이들이 특히 수요 확대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조금의 사용하는 홍보 및 연구활동의 선정 등과 같은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료분야의 경우 배합기술, 원료구입, 사료의 안정적 공급 등의 용어가 자주 나타나는데, 이러한 용어들은 양돈

경영의 측면에서 보면, 1) 고품질 돈육생산을 위한 사료배합 기술 및 2) 사료원료 가격 변화에 따른 사료비용 최소화 방법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이제까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양돈경영부문에서 몇 개의 분야로 나누어 핵심 연구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앞에서 제시된 경영부문의 연구과제들 중에는 우선순위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 분류한 각 분야는 별도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서로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여건이 변화하면 그 중요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그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지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것들도 있다.

어쨌든, 이 글에서 제시된 연구 이외에 미처 제시되지 못한 연구과제가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연구과제가 특히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실감한다. **양돈**